

5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기광석, 정영훈, 임현주)

계 절적으로는 봄인데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젖소가 순간적인 고온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산유능력 저하 및 번식을 저하와 같은 커다란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더위에 대비하여 축사 환기시설, 보온 및 운동장에 그늘막 설치 준비를 한다.

개체별 산유량을 점검하고 사료값 등을 고려하여 저능력우와 번식장애 및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신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젖소 개체관리기록부를 통한 개량, 번식, 영양, 질병상태 등과 축사시설의 환기, 분뇨처리, 착유시설, 운동장 시설 등을 종합 체크하여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젖소에게 수질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물 급여는 우유생산량이나 성장을 제한할 수 있고,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따라서 급수원의 물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조사하고 물 저장탱크, 수도관의 부식여부 검사 및 수리를 해 준다. 만약 산유량이나 번식성적이 저하되고 우군의 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소에게 공급되는 물은 매년 대장균, pH, 질산염, 아질산염, 총 세균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구충 및 발굽삭제를 실시한다. 청예사료 급여가 시작되는 시기로 호맥 청예를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므로 청예사료를 급여할 때는 7~10일의 여유를 두고 급여량을 서서히 늘려주어야 한다. 건물섭취량 증대를 위하여 청초보다는 햇볕에 1~2일 말려 수분을 줄여서 충분히 급여하여 산유량 증대를 위한 사양관리를 한다. 청예급여 및 따뜻한 기후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므로 산유량이 늘어나고 채식량이 증가하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젖소의 에너지 섭취가 부족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료급여량만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사양표준을 다시 검토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조정해 주고 소금 및 광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번식관리

5월은 기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해 발정과 수태 및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는 번식계절이다. 분만 후 사양관리 부실로 인한 영양장애 즉, 비타민 A, D, E와 철, 망간, 아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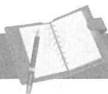
의 미네랄이 부족하여 생식기(자궁, 난소)의 회복지연, 황체발육부전, 난소기능휴지 및 난소위축 등으로 미약발정이나 둔성발정의 발생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료 및 농후사료의 충분한 급여나 번식에 필요한 미네랄을 추가로 급여하여 배란 및 번식에 도움을 줘, 발정징후 및 수태율을 증대시키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유축의 번식상황을 반드시 기록·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관리지표는 우군의 번식과 관련된 성적을 알려주는 지표로, 효율적인 번식관리를 위해서는 공태일수, 분만간격 등의 농가별 번식관리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번식수준의 평가는 우군의 정확한 기록에 의한 번식지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번식지표를 잘 활용하면 개선해야 할 내용, 목장에 맞는 번식 목표 설정, 주기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번식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적인 번식관리지표는 12~13개월의 평균분만간격, 80~110일의 평균공태일수, 50~70일의 분만 후 첫 수정 평균일수, 2.0회 이하의 임신에 필요한 평균 수정횟수 및 70% 이상의 발정발견율이다.

이런 효과적인 번식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항목으로는 개체번호, 분만일자, 산육기 질병 및 치료여부, 발정일자, 수정일자, 정액이름 그리고 임신진단 결과 등이다. 이러한 항목을 각 개체별로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수정 가능 두수, 수일 이내에 발정을 보일 두수, 임신진단 예정축, 임신두수 그리고 분만예정일 및 두수 등을 산출할 수 있다.

번식성적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군의 번식자료 즉, 평균공태일수, 분만간격, 분만 후 발정 재귀를 파악하고, 분만 후 첫 수정일 및 수태까지의 인공수정 횟수 등을 파악해 목장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발정관찰, 특히 중요시 되는 분만 후 첫 수정일 그리고 미경산우의 수정 전 발정상황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우군 번식정보의 정기적 기록정리를 통해 다음 발정, 수정, 건유 및 분만시기 등을 예측함으로써, 번식효율을 높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방역 및 위생관리

기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기운이 따사롭지만 짧은 봄은 금방 지날 것이고 곧 여름의 더위가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관리로 가축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법 초여름의 온도를 보이지만 아침, 저녁의 큰 일교차는 가축에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에게 호흡기질환의 발생을 높인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등으로 다양하지만 스트레스가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큰 일교차 뿐만 아니라 이유, 수송, 거세, 환기의 불량, 사료의 급변, 사역 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고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기 보다는 일교차가 심할 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호흡기 질환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축사내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고 너무 춥다고 문을 닫아 환기가 불량하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유나 수송시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파스튜렐라성 폐렴 예방 백신이나 적절한 예방치료를 취한다면 호흡기질환은 감소된다. 파스튜렐라성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만족스럽다. 송아지를 구입할 시 수송 전에 접종할 때 파스튜렐라성 폐렴인 수송열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송 직전이나 직후에는 지속성 항생제, 대사촉진제, 해열제 등의 예방치료를 실시했을 때 호흡기질환이 발병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적의 젖소 몸 상태를 유지하여야 고온 환경에 대응하여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다. ☺